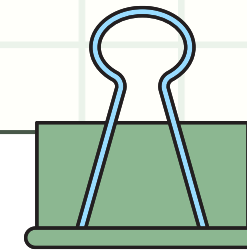




출근길 단속, 숙취 운전 이대로 괜찮은가?



직장인들의 숙취 운전 적발 사례

아침 숙취 주의!...출근길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여보, 출근길 운전 조심해”...8명 중 1명 ‘숙취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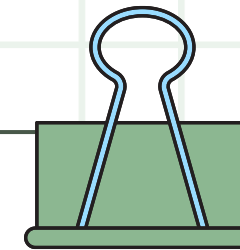
경남청, 음주 단속 1909건 적발...출근길 숙취운전
175건

"숙취 음주 운전 안돼"...1시간 출근길 단속에 6명 적발

출근길 숙취 운전 교통사고 낸 40대 원주시청 공무원
입건

부산 기장경찰서, 출근길 숙취 운전 '한 달간 55명 적발'

경기북부경찰,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2시간 만에 13명 적발



직장인들의 숙취 운전 적발 사례



아침 숙취 주의!...출근길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 KBS 2025.04.15.

조회수 1.5만회 · 1개월 전



저녁에 술 한잔 마신 뒤 아침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오늘 출근길에 불시 음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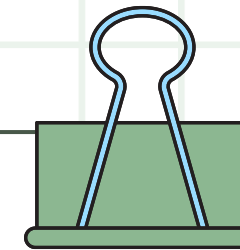
'어제 마신 술은 괜찮겠지?'...숙취운전 줄줄이 적발 / YTN

조회수 4.2천회 · 1개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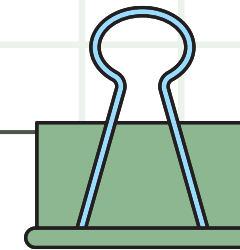


경기북부경찰청,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실시 숙취운전 잇따라 적발...전날 마셨어도 수치 측정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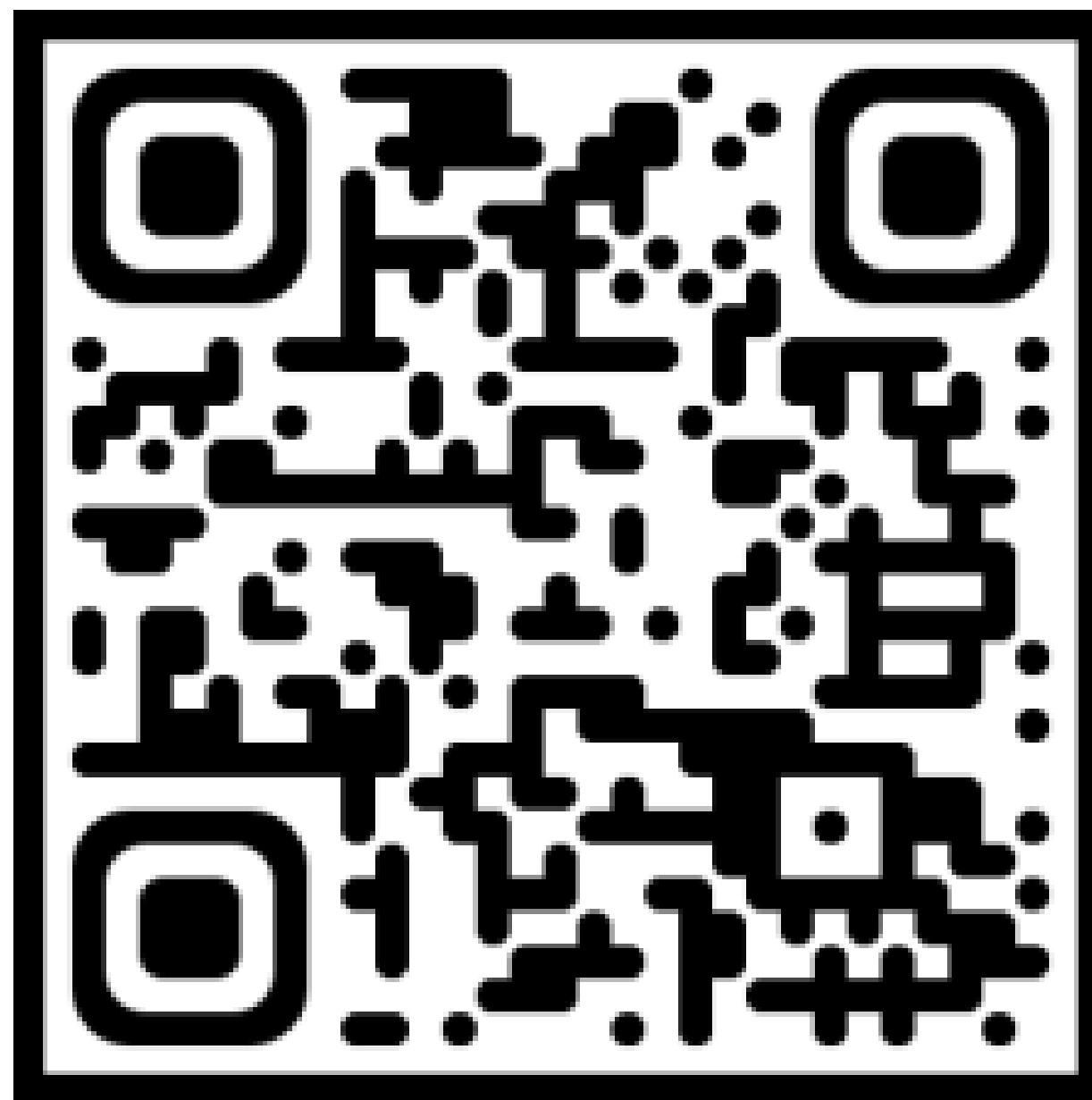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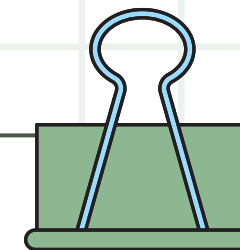
- ✓ 2014~2023 경찰청_음주운전적발기록
- ✓ 가해자 음주정도별 주야별 교통사고 데이터, 경찰청
- ✓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경찰청
- ✓ 전체사고 음주사고 시간대별 데이터, 한국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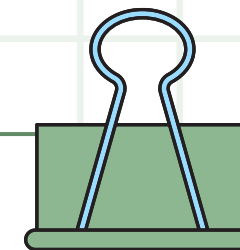
참고 논문

- ✓ 이영순, 김상철, 『음주 후의 혈중 알코올의 농도-시간 관계』, 『대한법의학회지』 제19권 제2호, 1995, pp. 92-101.
- ✓ Raymond C. Peck, Kenneth H. Gebers, David J. Voas, Allan F. Romano, 『알코올이 정신운동기능 및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캘리포니아 차량국(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2008.
- ✓ 윤영석,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84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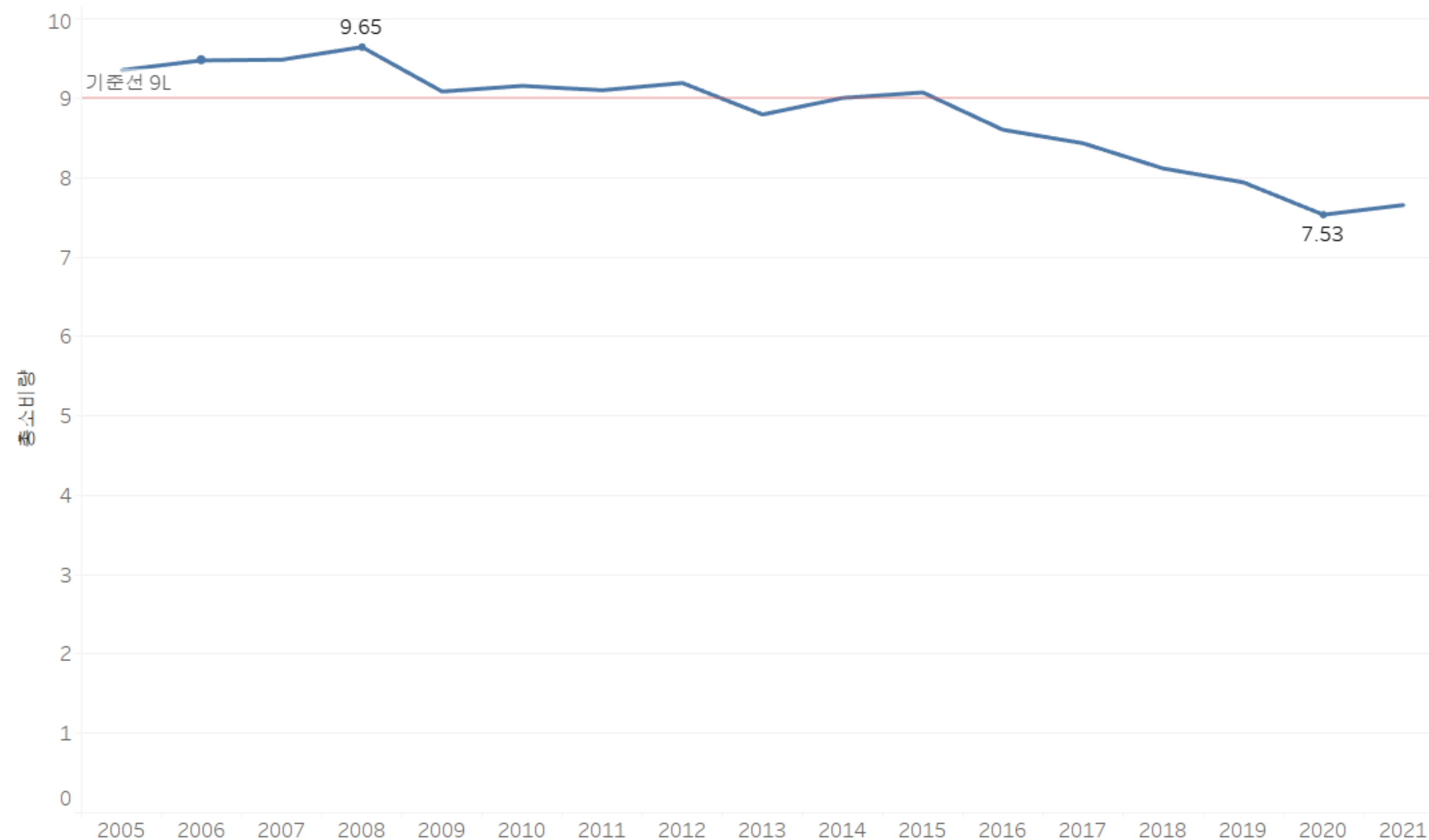
GIT



https://github.com/KSCH2582/lion_mid_data07



연도별 20세 이상 1인당 음주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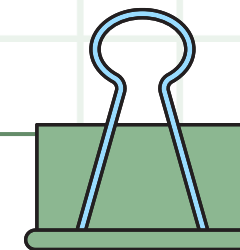
**코로나 이전 음주
소비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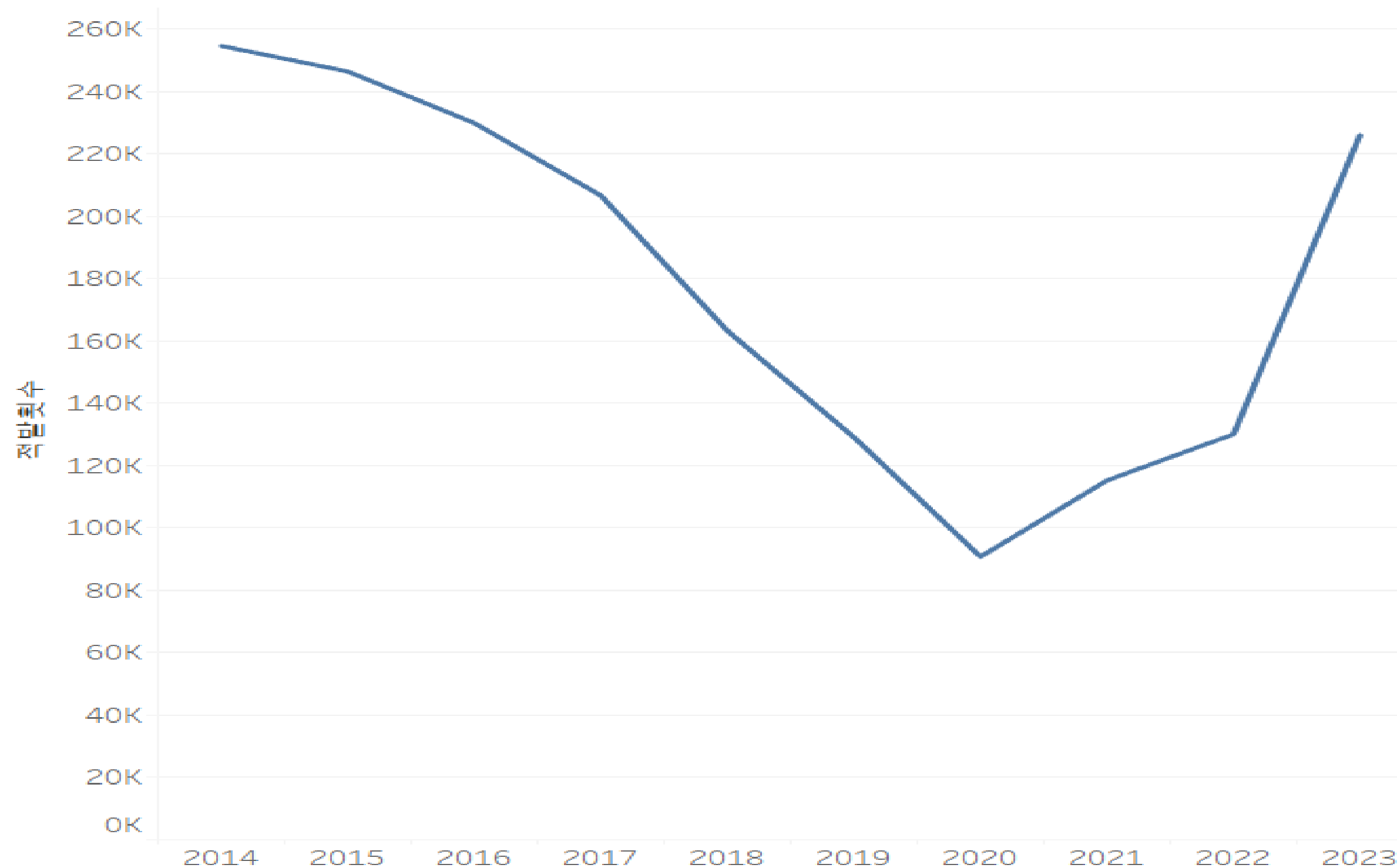
음주 문화 변화 야기



**코로나 이후 음주
소비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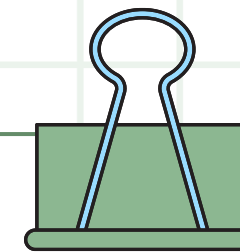
연도별 음주 운전 단속 건수 추세



2020년 이후 증가세



음주량 변화와의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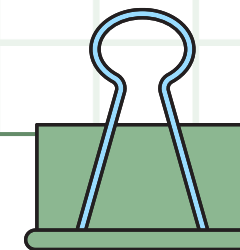
숙취 운전이란?

전날 음주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 체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충분히 해독되지 않은 상태

일반적 출근 시간대인 6 ~ 10시 사이에 숙취 운전 적발 가능성 증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의 음주 단속

숙취 운전으로 정의



술 마신 뒤 운전 왜 할까?



8명 중 1명은 숙취 운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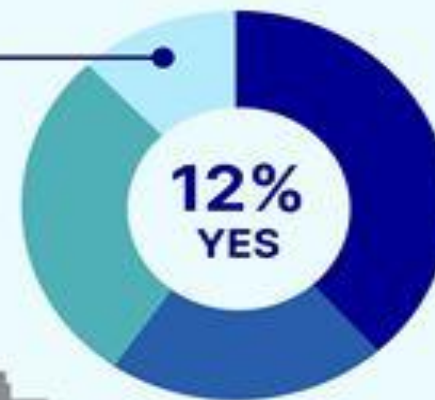
“8명 중 1명은 숙취운전 한다”



AXA손해보험,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조사 기간: 22.10.29 ~ 10.31 |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

음주 후 다음 날 운전 경험이 있는가?

■ 전날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한다.



절대 운전하지 않음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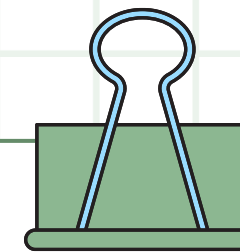


숙취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운전하지 않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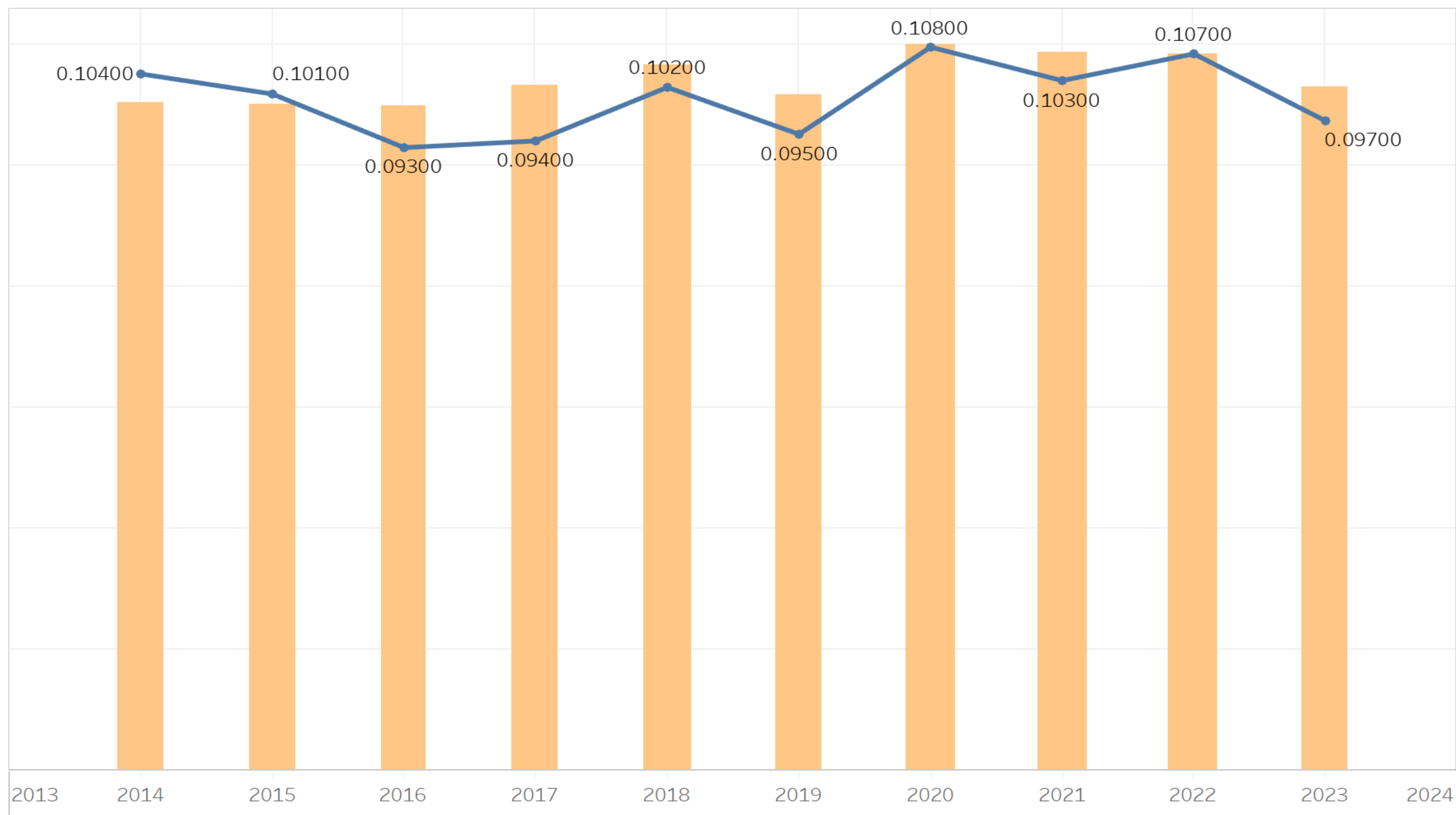


전날 과하게 음주한 경우에는
운전하지 않음 (28%)





숙취운전과 일반 음주 운전의 평균 알코올 농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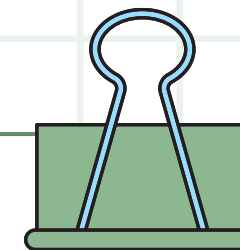


측정값 이름

■ 중양값 알코올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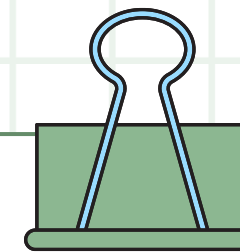
■ 중양값 연도 평균 알코올농도

예외 없이 모든 연도에서
0.10%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유지됨. 숙취운전과
일반운전의 평균 알코올
농도의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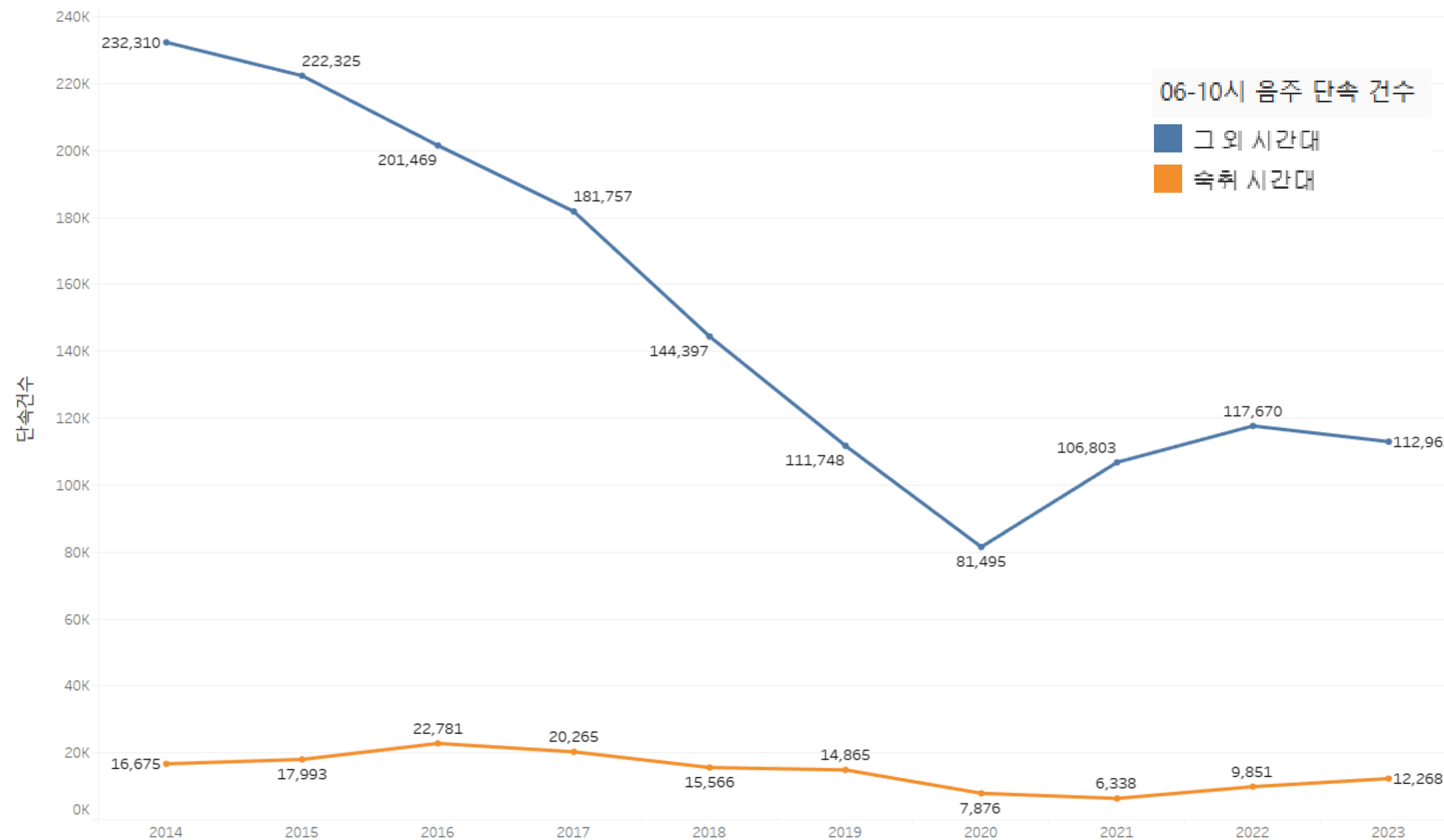


혈중 알코올 농도 해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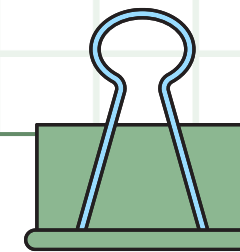
시점	특징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
0 ~ 30 분	음주 직후	흡수 중, 체내 혈중 알코올 농도 낮음 또는 측정 불가
30분 ~ 2시간	체내 흡수 완료 단계	체내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조 도달
2 ~ 6시간 이후	대사 및 배출 시작	혈중 알코올 농도 점진적 감소
6시간 ~ 다음날	대부분 대사 완료	체내 혈중 알코올 농도 정상 수치 복귀 개인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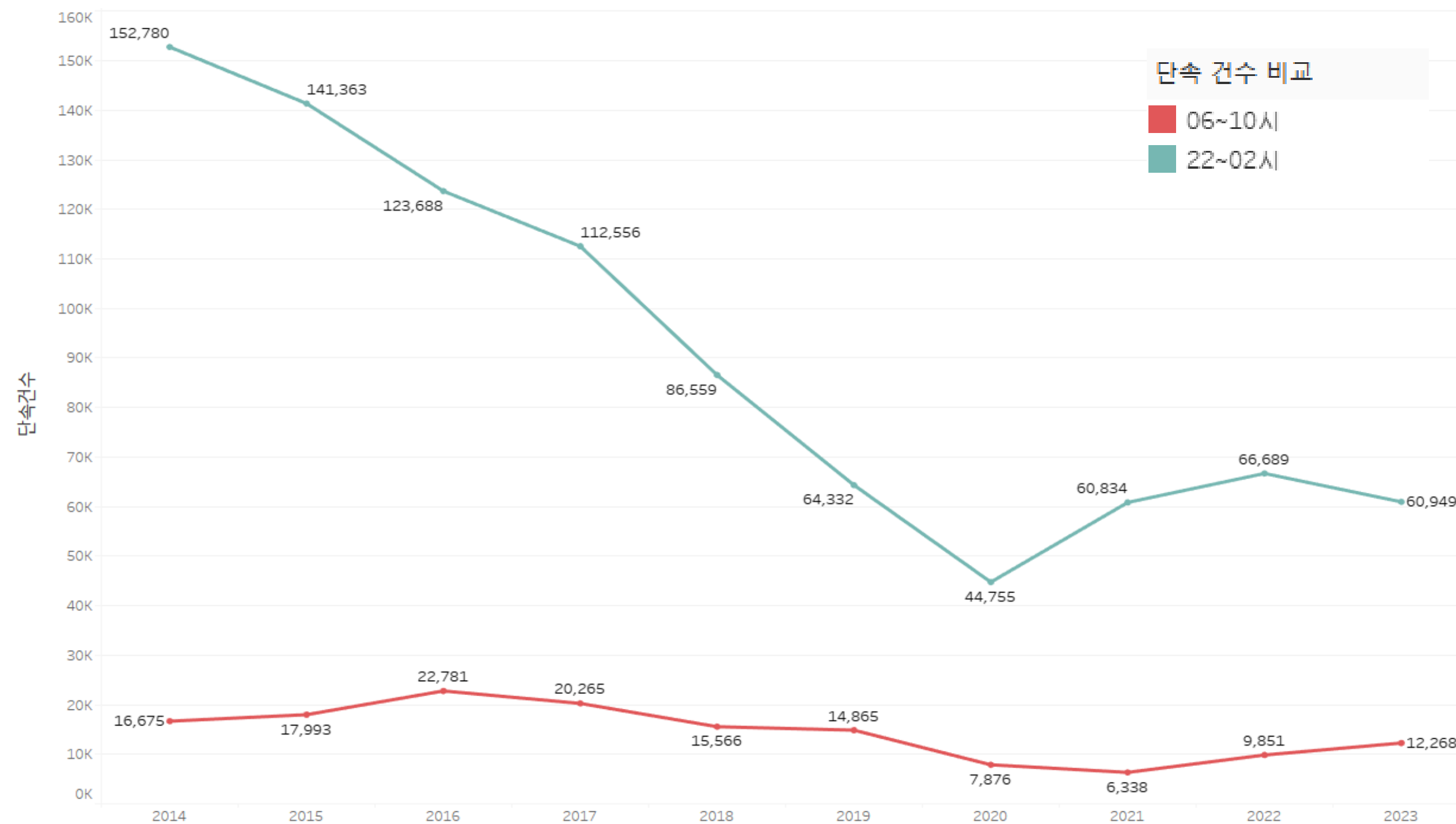
숙취운전과 일반 음주운전의 단속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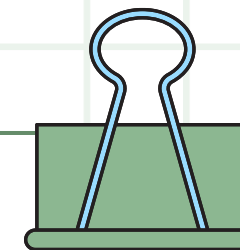
**일반 음주운전의 단속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숙취운전의 단속
건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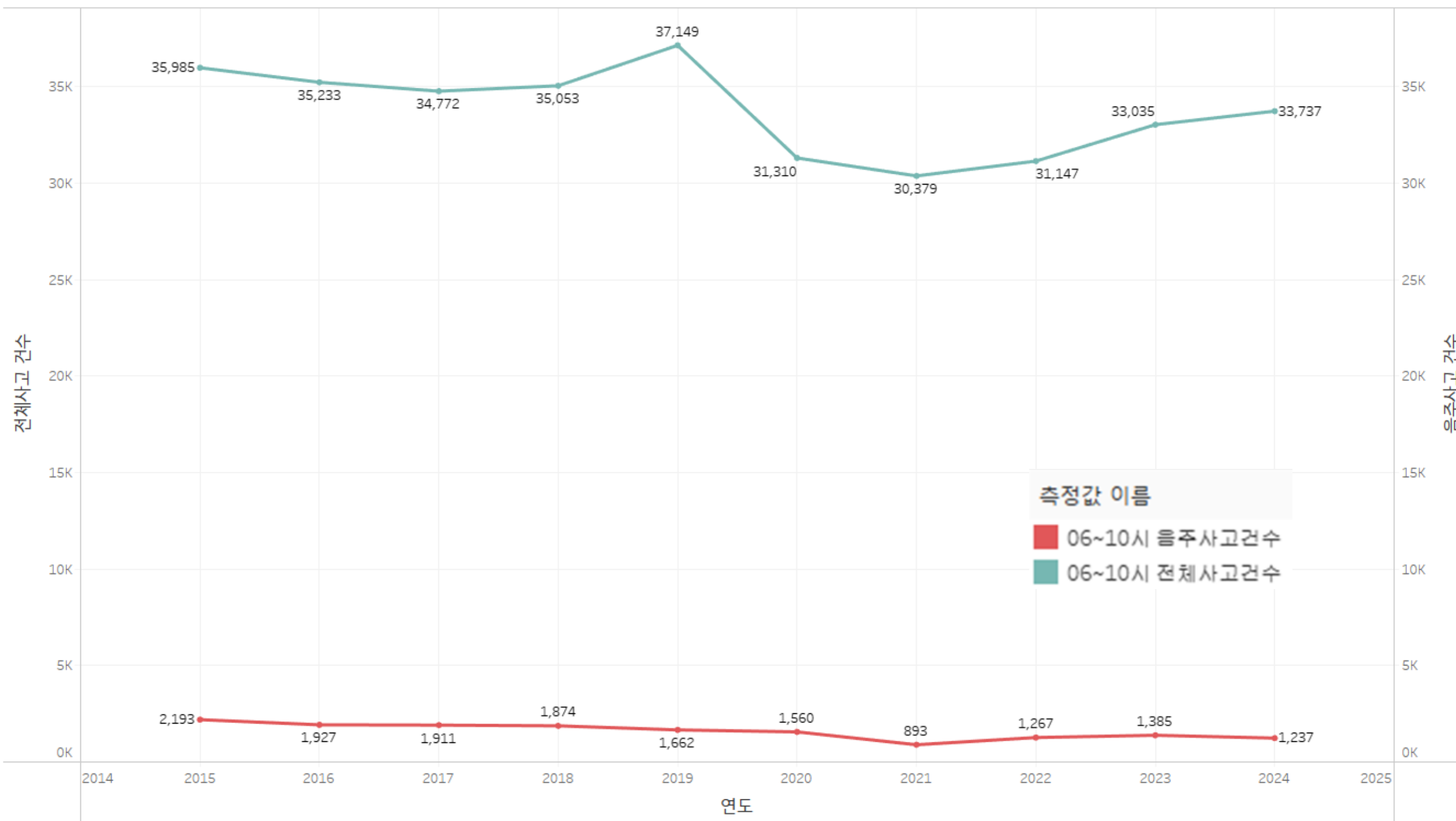
숙취운전과 심야 음주 운전의 음주 단속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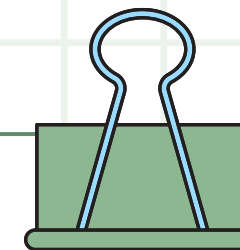
**심야 음주운전의 단속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숙취운전 단속 건수와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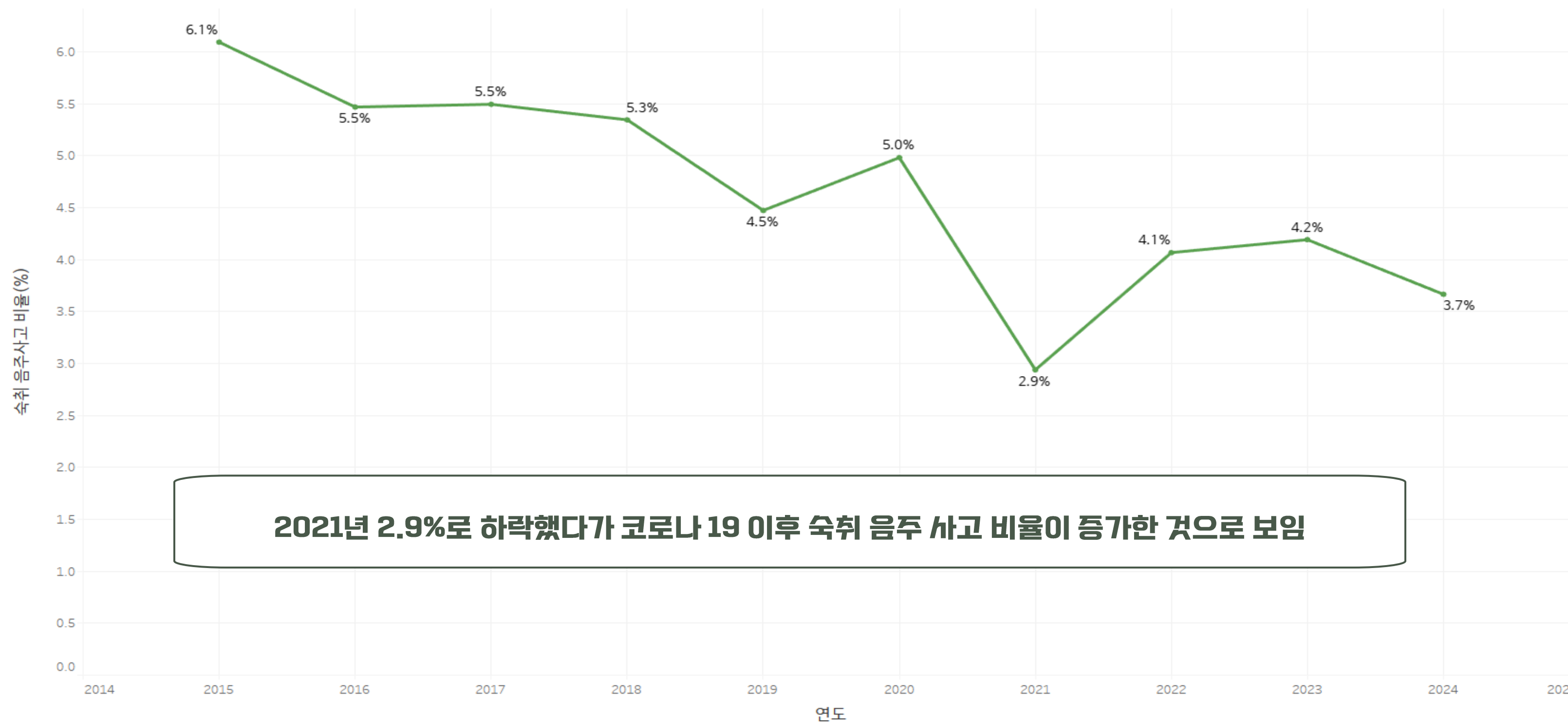
숙취운전 교통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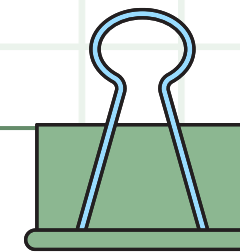


21년도 제외
매년 1,000건
음주사고 발생



숙취 음주 사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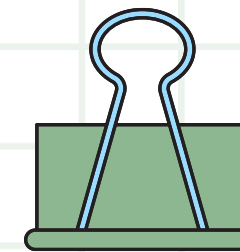


음주운전사고 VS 일반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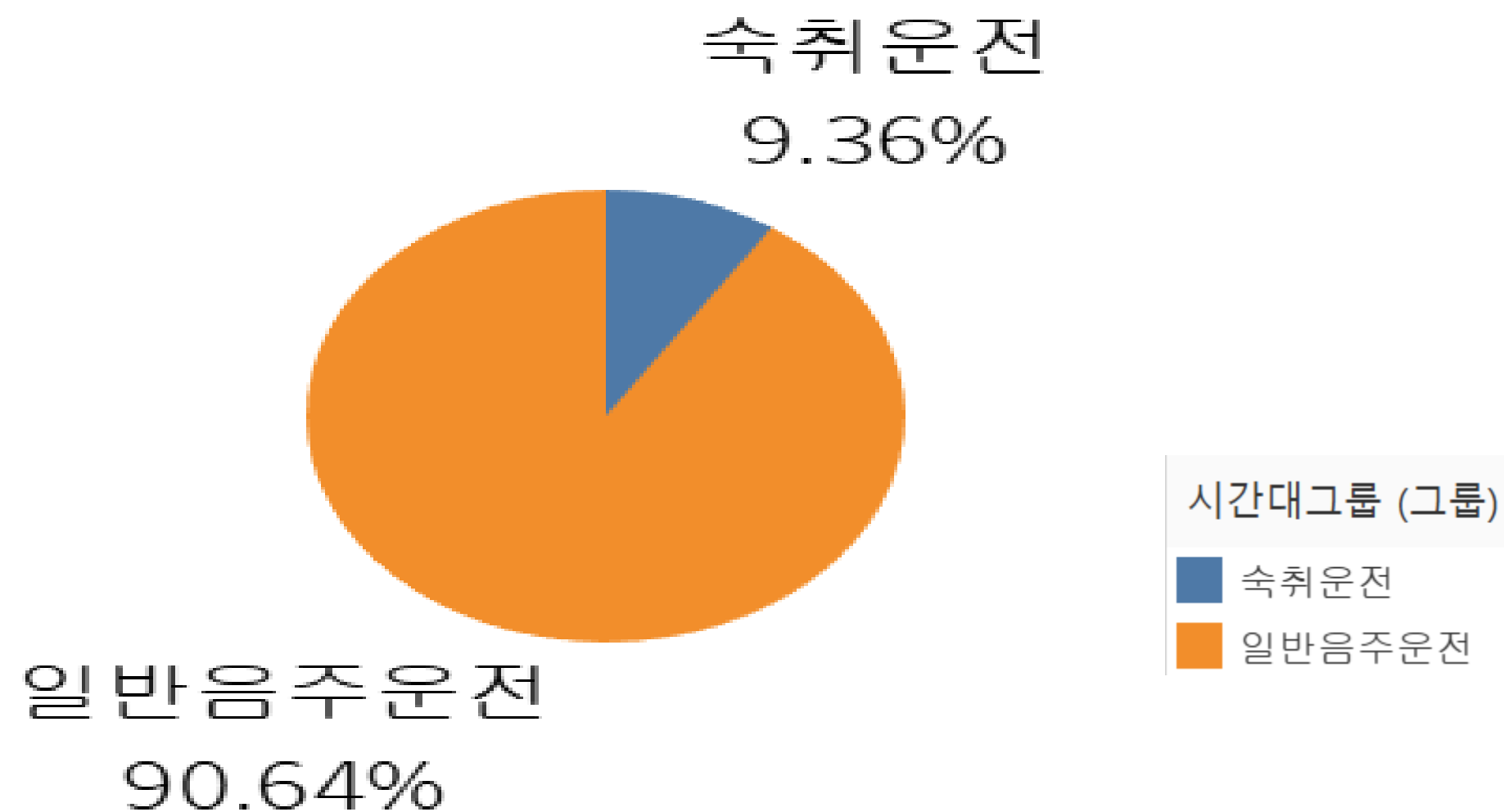
구분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치명률 (%)	100건당 부상자 수
전체 사고	2,120,300	34,032	3,111,584	1.60%	146.78명
음주 사고	170,053	3,148	283,295	1.85%	166.55명

✔ 상대적 사망 확률 약 16%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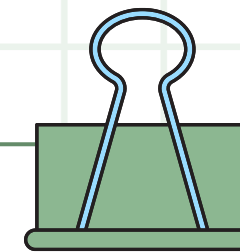
✔ 상대적 부상 확률 약 14% 높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숙취 사고 비율



숙취 운전의 사고 비율은 전체 비율의 약 **9.4%**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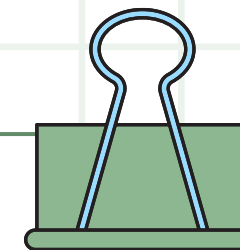
숙취운전 진짜 위험한가?

0.1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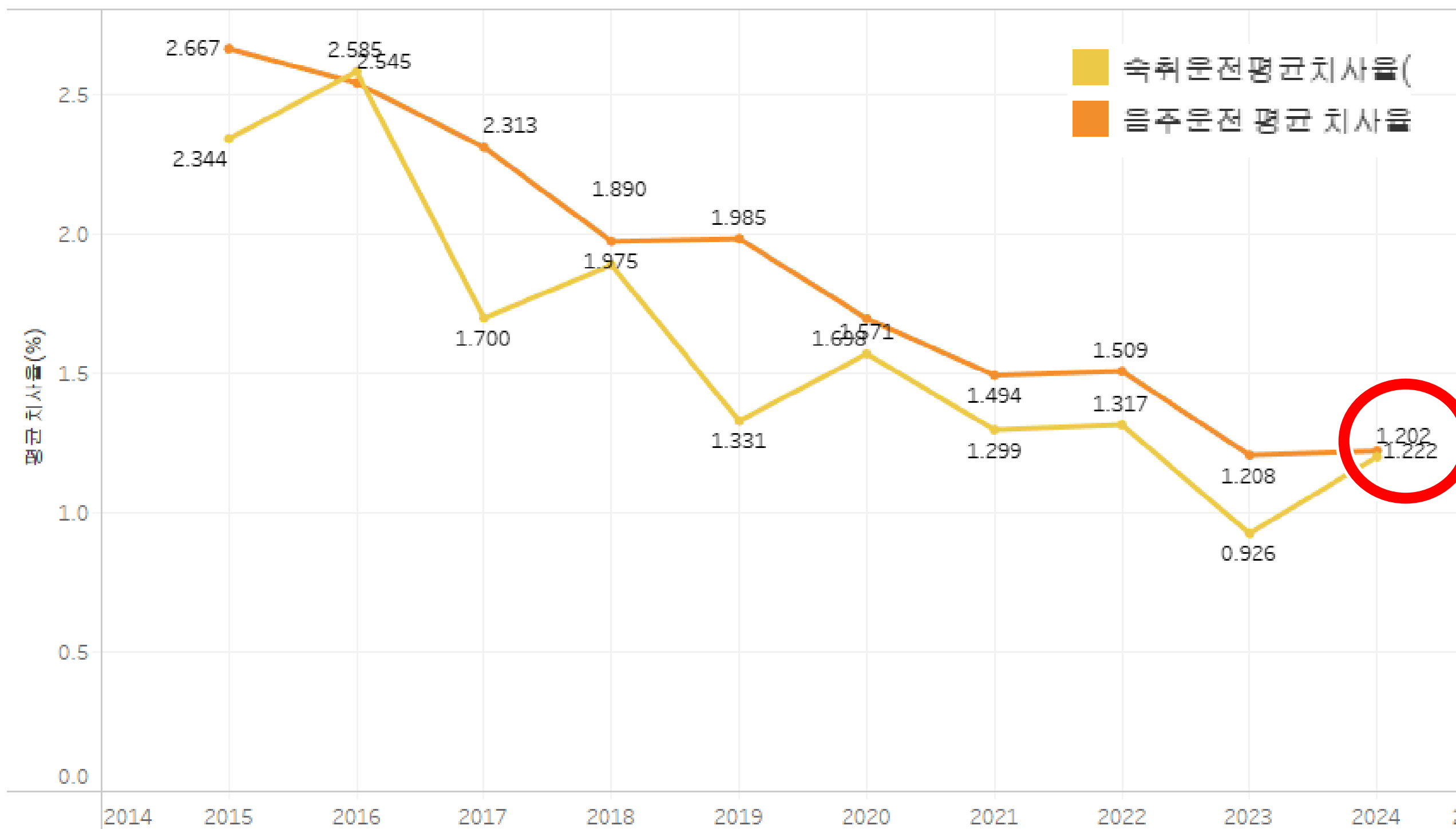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혈중 알콜 농도의 평균

0.1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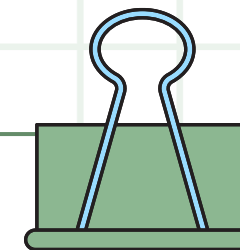
숙취운전 단속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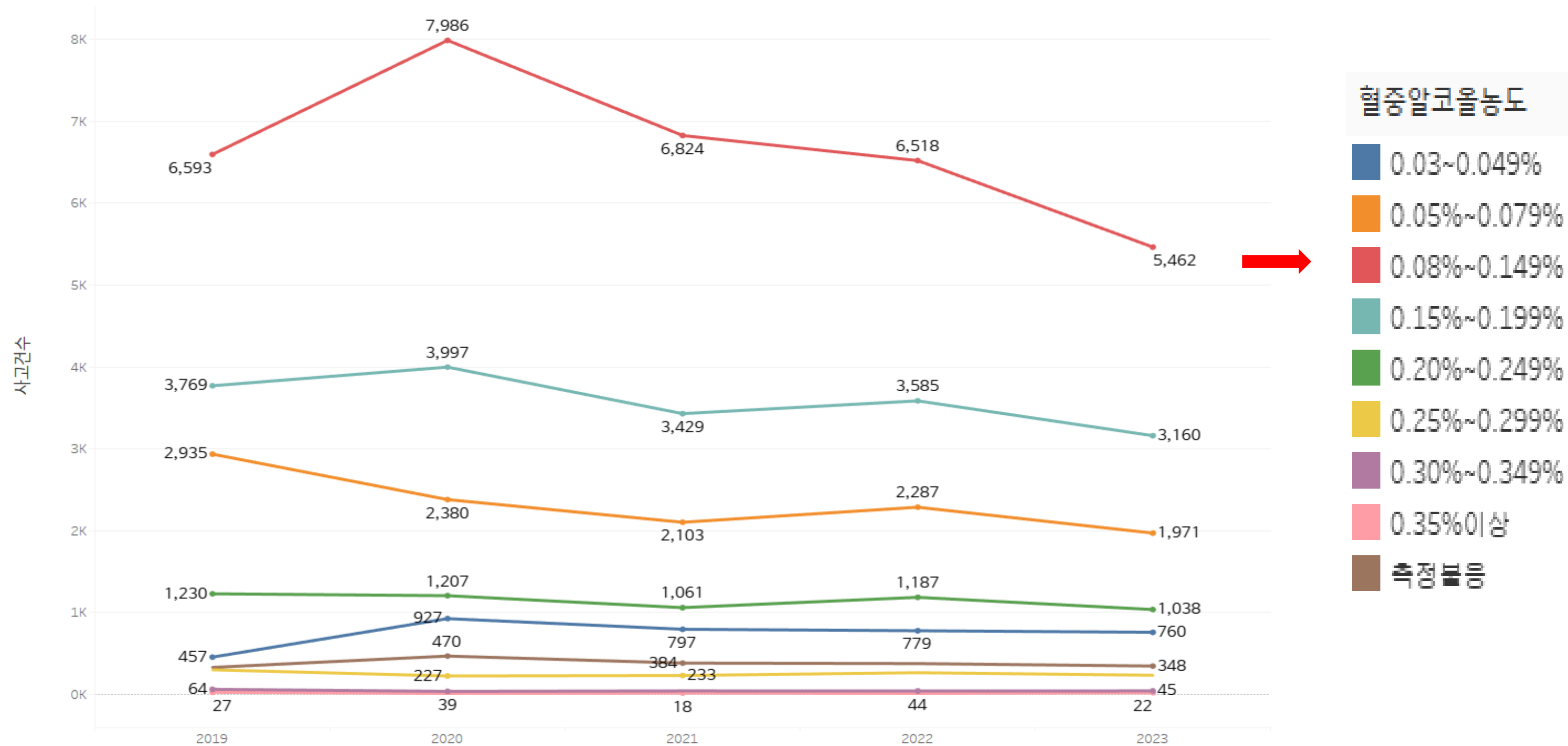
일반 음주운전 VS 숙취운전 치명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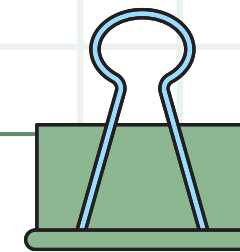


연도가 거듭될 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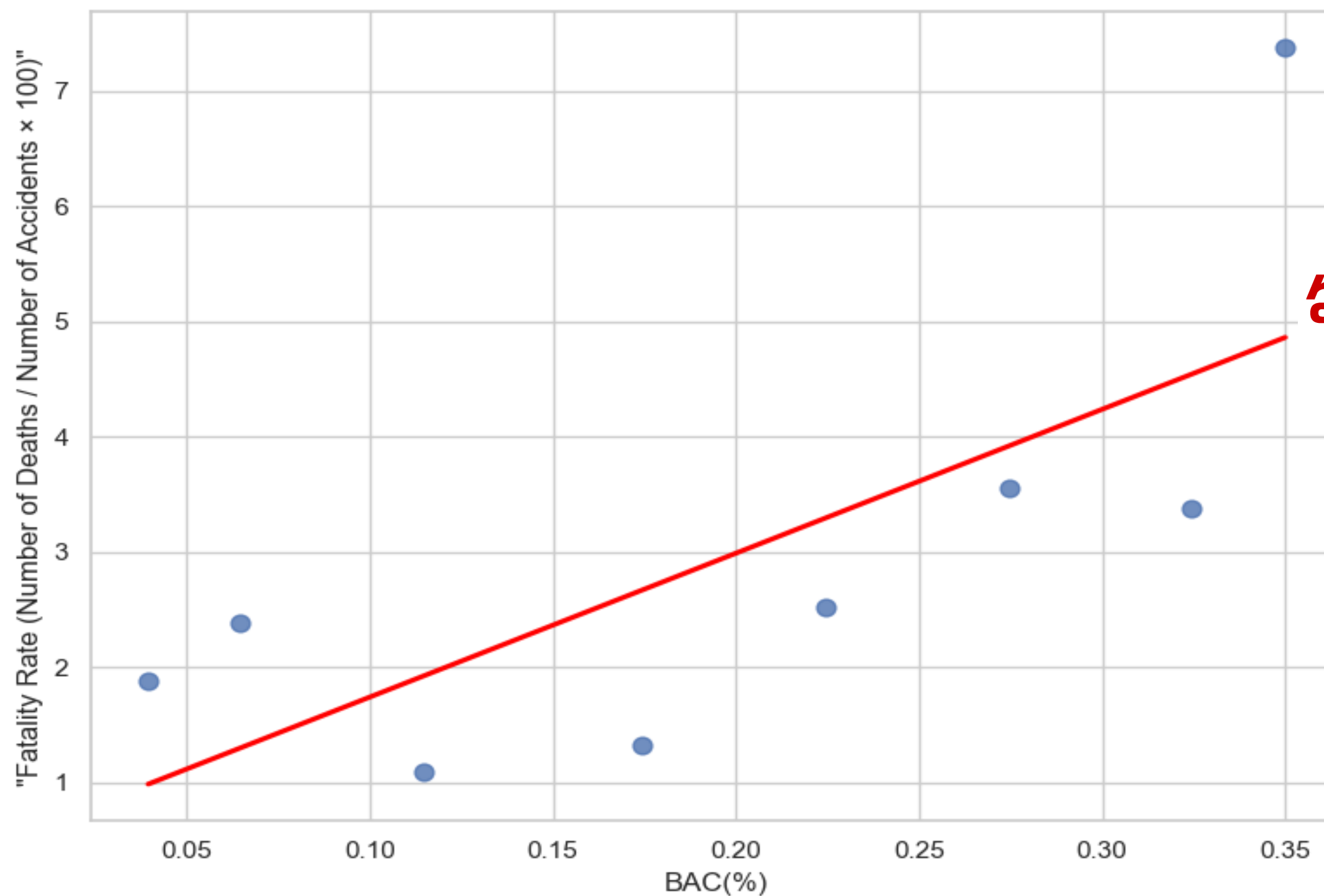


혈중 알코올 농도별 음주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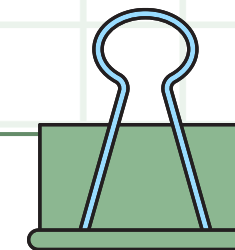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망률의 상관



상관계수: 0.73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인지 능력

구분	혈중 알코올 수치 기준	관찰된 영향 및 증상
정신운동 저하	0.02 % 이상	반응 시간 지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
	0.06% 이상	운동 조정력 및 손-눈 협응력의 현저한 저하 관찰
	0.08% 이상	균형 유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
운전 행동 약화	전반적 경향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 수록 차선 이탈 빈도 증가
		돌발 장애물 출현 시 제동 반응 시간 약 20 ~ 40% 지연
		과속으로 인한 속도 조절 실패 및 속도 유지 실패
사고 위험 증가	0.08 % 이상	가상 사고 발생률 비 음주 대비 3배 이상
		돌발 상황 대응 실패율 증가(보행자 등장 및 급정거 등)
	0.10% 이상	운전 능력 상실 수준, 대부분의 피험자에서 정상적 운전 수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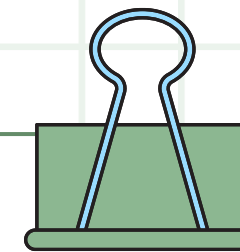
현재 음주 운전 정책 현황



① 혈중 알코올 농도의 모호성

② 심신 장애로 판단될 경우 처벌의 약화

③ 사고를 유발한 음주 운전자보다 무사고 재범 음주 운전자가 형량이 더 높다.



분석 결과

숙취 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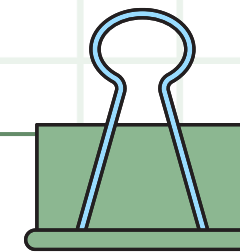
숙취 운전의 평균 알코올 농도 또한 일반 음주 운전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대중은 숙취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지만, 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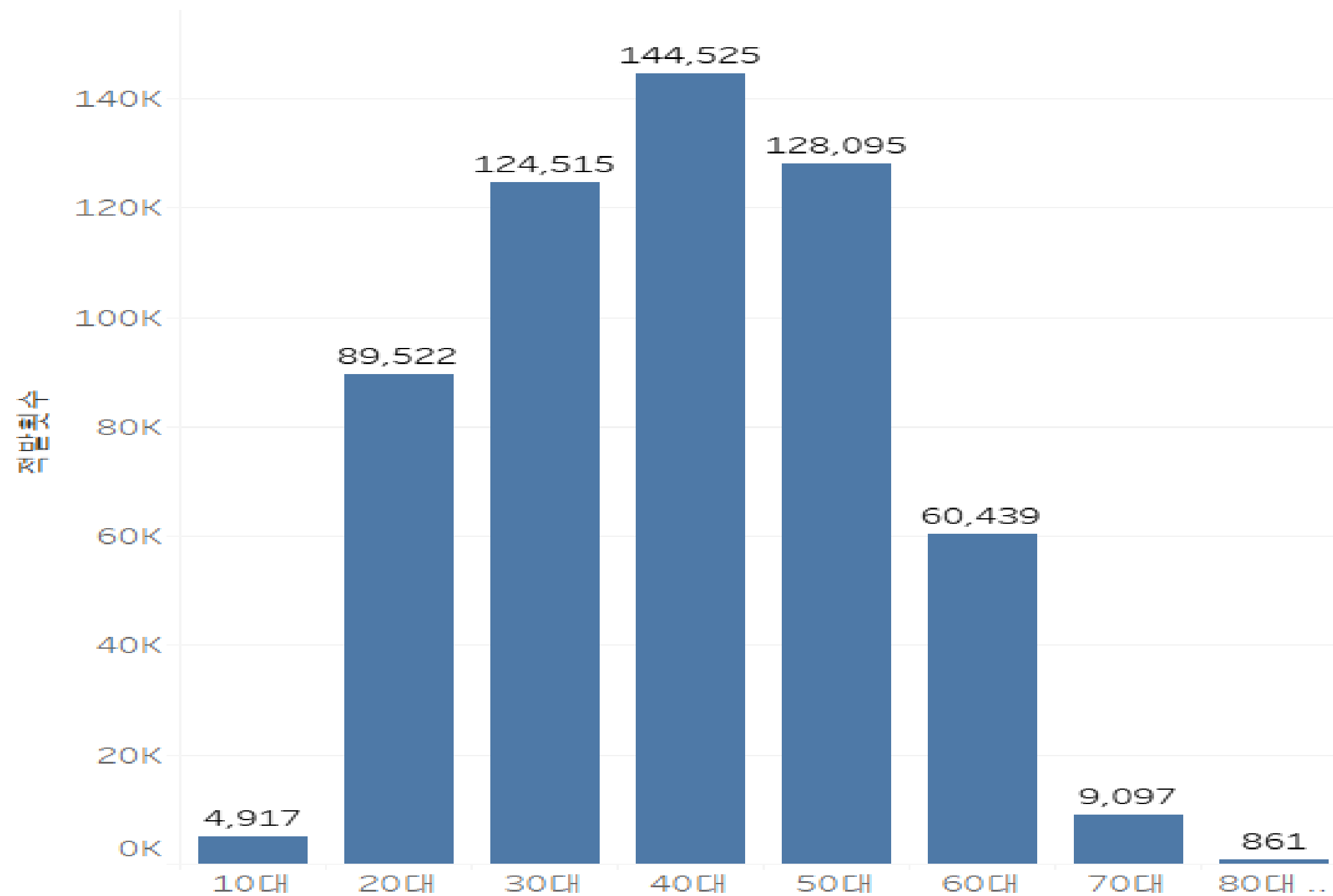
정책 제언

출근 시간대의 숙취 운전 관련된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숙취 운전 단속은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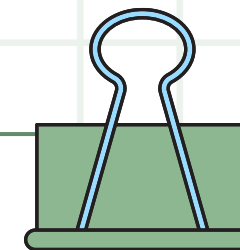
심신장애 책임감경 배제 등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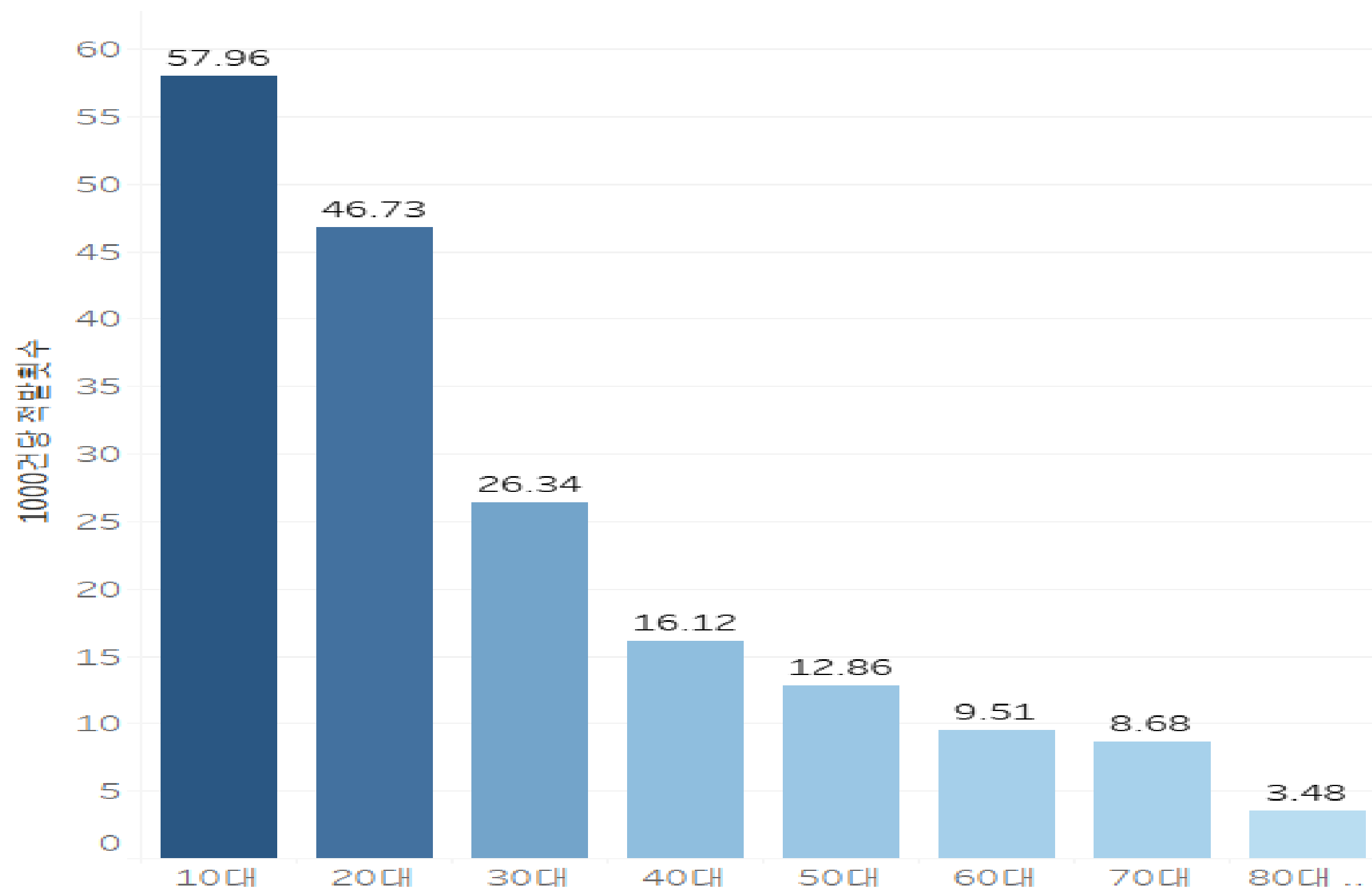
연령대 별 음주 단속 적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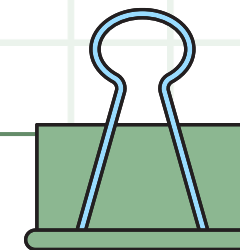
✓ 30 ~ 50대의 적발 사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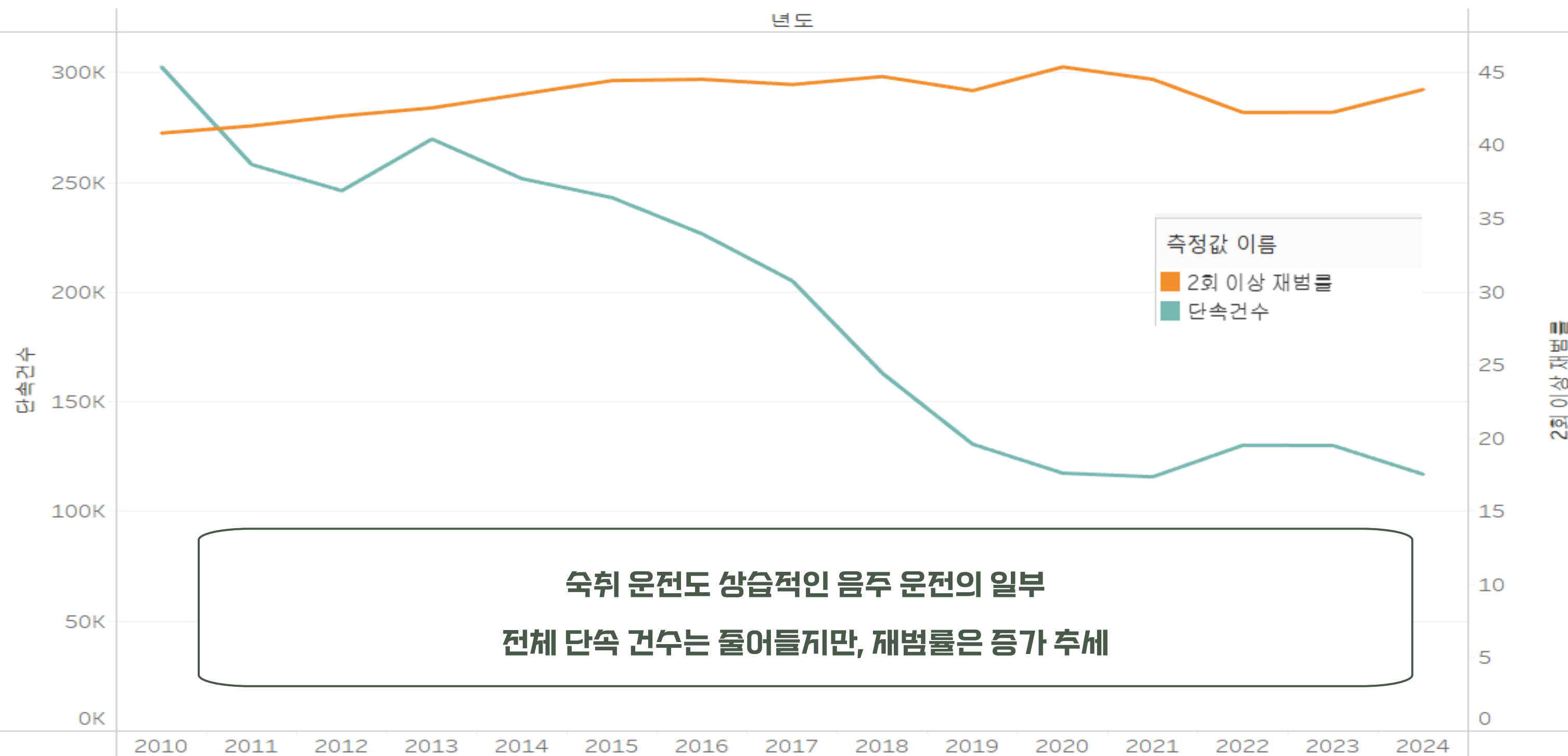
연령대 별 숙취 단속 적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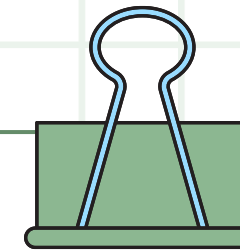


숙취 운전의 경우 10대와 20대의 적발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음주 단속 건수 및 재범률





제안점

연령대 별 접근

연령대 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

10대의 경우 왜 숙취 운전의 1000건 당 비율이 높게 나왔을지 원인 분석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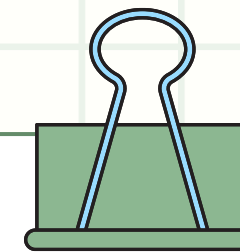
20대에 숙취 운전에 초점을 맞춘 예방 캠페인의 필요성 증대

재범 처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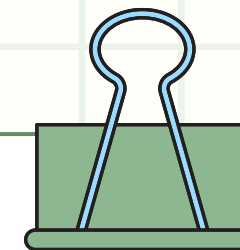
재범률에 관한 정책

2026년 10월 시행 음주운전 방지 장치(Interlock Device)로 재범률 축소 기대효과 증대(2024년 10월 국내 의무화)

질문과 답변



Q & A



감사합니다

THANK
YOU!